삼성중공업 합격 자기소개서

직무 : 시운전

자기소개서 :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래 한번 해보거라, 잘 할 수 있을 꺼야’이 말은 제 평생에 동기를 부여하고 저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한 저희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하는 아버지의 바람이 담겨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계속되는 사업 실패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좌절하지 않고 노력하여 혼자 힘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어떠한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그 모든 경험들이 제 자신을 더 강한 남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감히 제 자신을 독한 에너자이저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목표가 정해지면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끝까지 해내는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있고 꾸준한 운동으로 강인한 체력을 자부합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 어렵고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풀어나가느냐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상생활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를 견뎌내게 해

준 것은 희망 이였고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매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대학시절 매 학기 방학 때면 호주 및 뉴질랜드로의 단기 어학연수 그리고 영어마을

을 다니며 어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 다른 방학 때는 등록금 마련 및 현장의 긴장감을 잊지 않기 위하여 2달간 씩 아르바이트로 상선을 승선하여 해상 생활을 하며 영어공부에 전념하였습니다. 그 결과 TOEIC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적도 많았지만 친구들의 격려와 인생을 위해 시간은 금이라 생각하며 달려온 결과 총 7회의 교내.외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최고 학년 학부 학회장까지 맡게 되어 리더쉽과 책임감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쟁쟁한 학우들 사이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둔 이유는 최고를 지향하는 강한 '목표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이면 봉사활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마리아영아원 이라는 곳에서 참사랑을 배웠고

다회의 헌혈 봉사로 대한적십자로부터 헌혈유공장 금장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 그 안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되새기며 언제나 맡겨진 일은 몸이 힘들더라도 반드시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만일 누군가 맡은 일에 있어서 꾀를 부리거나 남에게 미루는 일이 있다면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일이 과중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곧 팀의 불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서 항상 남을 진실되게 대하고 한 무리의 투명인간이 아닌 핵심 멤버가 되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는

생활신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면 마무리 짓지 않는다’

저의 가장 큰 장점은 맡은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는 능력입니다. 맡은 일을 항상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매사에 신중하고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실함 또한 저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일을 한번 시작하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초.중.고 12년 개근과 동아리 활동 연습을 한 번도 거르지 않은 것은 제 성실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매사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시간을 조금 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보다 빨리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소한 일이라도 계획을 세워 시간 낭비를 최대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최고가 되고 싶으면 최고에서 배워라'

18살에 해외 취업선으로 실습을 나가게 되어서 1년간 한국에 돌아오지 못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선박이라는 부유체에 적을 두고 생활하며 구조 및 역학에 많은 호기심이 생겼고 그 호기심을 풀어보고자 조선공학도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 후 운이 좋게 삼성중공업에 견학을 갈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삼성중공업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총 7년의 선박과 해양에 관한 학업을 바탕으로 7년간의 승선생활을 통한 실무와 현장 통솔 능력, 그리고 확고한 책임감을 배우며 세계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삼성맨의 꿈을 키워 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고기술,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세계 최대 규모의 반잠수식 원유시추설비 해양플랫폼을 건조하듯이 이것은 혁신적이고 새로운 블루오션을 지향하는 삼성중공업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신뢰와 첨단 선박 및 해양설비에 대한 열정으로 삼성중공업과 저의 미래를 열어 가겠습니다. 또한 세계 조선 시장에서 초일류 기업, 삼성중공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열정을 통한 신기술 개발과 신뢰에 의한 품질 경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많은 경험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자기관리가 투철한 삼성맨으로서 한국 조선 산업을 책임질 인재가 될 것임에 자신합니다.